

## 1. 개정 이유

예대출 산출시 수개월 내 유동화가 확정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함으로써  
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원화예대출 산정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「보증자리론 업무처리기준」에  
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 제외(안 제26조제1항제3호라목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 별첨

##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“취급된 서민형”을 “취급된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[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. 이 경우 발행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(이하 “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“라 한다)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가산하고,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 이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다]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(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) 비율(이하 “원화예대출“이라 한다).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(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)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,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. 다만,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

<p>금대출(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)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,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. : 100분의 100 이하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한국주택금융공사의 「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」에 따라 <u>취급된 서민형</u> 안심전환대출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취급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